

22.03.11

스티븐 클링먼의 『나딘 고디머의 소설들 - 내부로부터 역사』

: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와 『보호주의자』에 드러난 역사 의식

최하림(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석사과정, 사과나무 연구원)

✧ 서론

나딘 고디머의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와 『보호주의자』는 역사적 상황과 개인, 개인과 개인이 맺는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나딘 고디머의 소설들 - 내부로부터 역사』에서 클링먼(Clingman)이 전개한 작품 분석을 통해 두 소설을 살펴보고 한다. 클링먼은 역사의식에 관심이 있다. 그는 “가치 있는 예술은 역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한계 ‘덕분에’ 가치 있게 된다.” 라는 테리 이글턴의 말을 인용하여 고디머 작품의 역사 의식을 탐구하는 자신의 기획을 소개한다(18-19). 클링먼의 목표는 고디머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또 작품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클링먼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개인은 어떤 의무를 가진다고 느끼는지 등의 역사의 문제를 문학을 매개로 보는 것에 관심을 둔다. 문학은 개인적·사회적 서사가 가시화되고 공론화되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클링먼에 따르면 소설은 “내부로부터의 역사”를 알려준다(xxxvii). 그래서 소설이 표상하는 세계 그 자체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표상이 스스로를 내보이는 형태이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 세계 자체보다 그 세계의 특정한 의식(consciousness)을 보고자 한다. 이 글은 고디머의 소설에 나타나는 역사 의식을 탐구하는 그의 분석을 소개한다. 그 과정에서는 형식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형식은 의식에 있어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형식은 한계와 모순의 윤곽을 그림으로써 역사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며 이에 따라 작품이 미학적으로 풍부할 때 우리의 역사를 추적하는데도 유용하다고 클링먼은 말한다(18).

이 글에서 다룰 두 소설의 작가 나딘 고디머는 19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교외에 위치한 탄광촌 스프링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리투아니아 태생의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영국계 유대인으로 남아공에서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가 작품활동을 한 시기의 대부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1948년에 공식화된 법률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한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국민들을 인종별로 분류하여 거주지분리, 통혼금지, 출입구역분리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

1966년 출간된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는 이 시기 남아프리카 역사에 나타난 이중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Clingman 91)¹. 그 첫번째는, 1950년 대에 일어난 정치적 저항의 강화와 평화적 국면에서 폭력적인 국면으로의 이행으로 구성된다(91). 이러한 격화는 195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시작되었다. 1960년까지 흑인 농촌 인구가 주로 정부의 반투 자치법²에 반대하며 봉기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들도 이에 응했다. 정부의 대응 또한 두드러졌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광범위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저항 운동 단체들은 모두 불법화되었다. 1950년대의 운동은 비폭력적인 방식을 주로 채택했으며 샤프빌은 그 자체로 평화적인 시위로 의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억압과 폭력에 맞닥뜨렸다. 국가는 흑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운동 조직을 금지시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국가에 맞서기 위해 이제 저항 운동 단체들에게 평화적인 방법과 목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ANC는 1961년 12월 16일 사보타주 운동을 시작했다(92). 남아프리카회의(PAC)와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1961년 10월 아프리카 저항 운동(ARM)은 사보타주 운동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ARM은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었고, 이념적 구성은 비주류 자유주의에서 트로츠키주의까지 다양했으며 정치적으로 헌신적이지만 조직력이나 지도력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ARM에 대한 고민이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의 직접적 추동력이 된다(93).

두 번째 단계는 예상치 못한 잔혹성을 띤 국가의 폭력적 대응이었다(92). 국가는 막대기로 무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갑차를 보냈다. 정치운동은 곧 비활성화되었다. 엄콘토 웨 시즈웨이는 우두머리인 넬슨 만델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63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억압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재판 없는 구금 기한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죽었다. 재판 없이 구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표되는 동시에 인용·배포가 금지되는 작가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졌다(93).

고디머는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가 1963-64년 젊은 백인 시위대의 물결을 일으킨 사회 환경의 특정 성격을 탐구하려는 시도였다고 밝힌다(95 재인용). 소설의 주요 초점은 1960년대 초기 혁명적 순간들에 발생했던 충돌과 한계들에 대한 검토에 있다.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는 소설의 화자이자 중심 인물인 엘리자베스가 전 남편 맥스 반 덴 샌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맥스의 가장 큰 실패는 그가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았다는 것, 즉

¹ 이하 저자명을 생략하고 페이지 수만 표기한다.

² 반투자치법 (1951년) : 이 법률은 흑인들만의 분리된 정부를 규정했다. 반투스탄이라고 불리는 불모지 땅에 흑인들을 집단거주시키고, 남아공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완전히 박탈하여, 흑인 노동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인정받고자 하는 야망이 그의 동기였다는 것이다(97). 여기에는 맥스가 스스로에 대해 역사적 구원자라는 과장된 이미지를 부여한 것도 포함된다. 그는 현실적·객관적 가능성을 과대 평가하고 이상주의적이고 낭만적으로 사고했다. 이는 부르주아 세계의 관점에서의 반항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광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가 전복시키려는 세계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전형적인 유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맥스가 표면적으로 반대했던 '국가'에 대해 '증인'으로 돌아선 맥스의 내적 논리를 구성하게 된다(97).

역사적 여파의 맥락에서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의 중심적 관찰이 혁명 이후의 침묵의 시기의 백인 의식 패턴에 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의식의 중심적인 특징은 완전히 축소되고 분열된 세계, 즉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근본주의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만약 맥스의 자살이 혁명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상징한다면, 그것을 엘리자베스에게 알리는 전보 또한 하나의 상징이다(100). 사실이 감정을 압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지칭하는 세상에서는 본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만 살아남는다. 맥스의 죽음을 듣고 엘리자베스는 '내가 믿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모든 초유동성이, 의식마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는 세상인 것이다. 심지어 엘리자베스의 관계 맺기도 이러한 고갈에 관여한다; 그녀는 자신과 그녀의 연인 그레험의 관계는 이름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필요할 때 표준 어휘를 사용한다"*(101; Late Bourgeois 53;).

더 나아가, 작품에서는 이러한 축소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논리가 제시된다. 엘리자베스는 *'사랑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101; Late Bourgeois 65;). 이는 자유주의 인본주의의 실패를 뜻하며, 엘리자베스는 맥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맥스의 낭만주의와 같은 의식의 사치들이 역사적 환상을 낳았다고 말한다(101). 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역사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더 이상 환상은 남아있지 않다. 사람들은 완전한 환멸의 상태만이 환원 불가능한 진실을 보장하고 더 이상의 잘못된 정치적 추정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10년간 계속된 위기와 그들을 가득 채운 감정적인 강렬함 후에 엘리자베스는 다시 시도할 힘을 잃은 세상에서 살아 간다(101). 실패한 혁명적 순간 그 자체가 그녀의 아이러니를 구성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을 남아공 백인들과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할 수 있게 한 객관적인 조건들이 지금쯤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나도 돼지허리고기 꾸러미와 의자를 햇볕에 쪼고 있다; 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101; Late Bourgeois 43)'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의 역사적 의식은 세 가지 특징을 통해 나타난다(102). 놀라우리만치 분명한 환멸만이 살아남아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이러니를 만나는 이 망연자실한 세상이 작품이 드러내는 역사적 의식의 세 가지 특징 중 첫 번째다(102).

그러나 이러한 미니멀리즘적 입장은 소설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102). 역설적으로,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는 정치적 폐쇄 상태에서 개입의 가능성을 어떻게 회생시킬지에 관심을 둔다. 엘리자베스는 아들 보보에게 맥스의 삶이 그렇게 비참했던 것은 직접적으로 정치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맥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이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맥스가 한 것은 마치 어떤 팀이 3군에서만 잘 할 수

있을 때 1군에서 뛰는 것을 고집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102). 그러나 이 명제가 시사하는 바는 자신의 힘과 경기의 요구만 안다면 1군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현실로 인해 개인적 참여의 가능성이 봉쇄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참여의 개념은 회복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관성의 원칙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에서, 만약 인격적이지 않은 분석을 통해 그 참여의 방식이 밝혀질 수 있다면, 개인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는 비인격적인 행동 강령을 찾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심리적 환원주의로는 이 강령을 구성해낼 수 없다. 심리적 환원주의는 어떤 행동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102).

엘리자베스와 그레험은 그가 읽은 책을 따라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그녀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어떻다고 말할 것인지 묻는다. (Late Bourgeois 112; 103). 그는 세상의 상태, 조건을 의미했던 것이지만, 엘리자베스는 잠시나마 그를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둘 사이의 본질적인 실패가 드러난다. 그레험의 질문을 언급하며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조용하고 비인격적인 요구였다. 변호사의 반대신문 같은 당파적인 어조가 아니라 판사가 사법적 무지의 특권을 행사하는 어투였다. 우리 사이의 힘의 실패로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113).

우리는 엘리자베스의 관계가 1960년대의 분열된 세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역사적 측면에서 그녀의 실패가 분명해진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이기도 하다. 그녀는 그녀의 환원주의가 수반하는 틀리지 않는 법칙주의(legalism)를 채택했다(103).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연인 사이에 ‘힘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을 가지지 않겠다고 체념한 사람의 권력에 굴복하는 자세이다. 따라서 엘리자베스의 방어적 명확성에는 빈곤, 즉 본질적인 수동성이 내재한다(103). 그것은 그녀의 삶을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의 주관적인 상관관계로 만들었다. 이 비유를 통해 대비되는 점이 드러나는데, 진실의 순수성에 대한 생각은 그 자체로 기만이라는 것이다. 요구되는 것은 진실의 순수성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책임감과 헌신, 신념에 대한 옹호를 지니는 또 다른 종류의 명확성이다(103).

추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역사적 사실에는 당파주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즉, 진실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변모해야 한다. 정당성은 맥스의 경우와 같이 실패만 낳는 부르주아 세계의 조건들에 대한 왜곡된 채택에 있지 않고, 엘리자베스 자신의 경우와 같이 결국 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조건들의 절대적인 거부에도 있지 않고, 조건들의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변형에 있다(104). 이때 아이러니가 변모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특권의 아이러니한 힘을 사용함으로써 엘리자베스는 아이러니한 게임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의 끝에 다다르게 된다(104).

엘리자베스의 변화의 코드에는 변증법적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후기 부르주아 세계’를 거부한 엘리자베스는 그 후 물질적 현실에 다시 개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을 변화시킨다(105). 엘리자베스의 명확한 세계는 맥스가 대표하는 것과 같은 시대의 낭만주의와 이상주의를 부정하지만, 그것의 목적을 재확정하면서, 그것이 처한 조건에 적합한

역사적 행동에 대한 강령을 발견한다. 그러나 결국 이 소설은 이것이 보증하는 것과 모순되게 된다.

이제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의 역사적 의식이 갖는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들은 엘리자베스가 다시 한번 행동의 전망에 직면하는 관점에서 명백해졌다(105). 두 번째 특징은 그녀가 범아프리카회의(PAC)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 움직임의 기저에는 급진적인 공리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루크와 관련하여 표현한 '자신이 가진 것을 주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잠재적인 효용 이론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루크의 조직이 맥스의 아프리카 동료들 중 한 명이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남아프리카에 한때 '흑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불렀던 것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자베스가 알고 있는 한, 즉각적인 효용과 기능은 그녀의 다른 모든 동기들을 압도하게 된다(106). '어떤 종류의 정치'에 대한 질문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이념적 세밀함을 고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정부 스스로도 여러 혁명운동을 구분하지 않는 상황, 이에 더해 국가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의 필요성은 어떤 혁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훨씬 능가한다(107).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계획된 행동에는 사실주의 외에 다른 것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으며 이는 세번째 특성과 연결된다. 엘리자베스는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려고 하고 있으며, 그녀 자신이 단언하듯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한 그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좋다. 혁명을 위해 정치적 진실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조직에 돈을 기부할 수 있는 희박한 기회가 그 지푸라기다. 즉, 엘리자베스의 계획에는 절망의 요소가 강하게 존재한다. 그녀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은 그녀의 실용성에 대한 호소의 기저에 주로 깔려 있는데, 이러한 절박감이 세번째 특징에서 강화된다(108).

세번째 특징은 신화적 낭만주의이다. 여기서 급진적 공리주의는 거대한 낭만주의와 결부된다. 소설의 역사적 리얼리즘이 갑작스럽고 거대한 신화에 의해 대치되는 것이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엘리자베스는 루크의 요청을 받고 침대에 누워 동이 트기 전에 반쯤 자고 잠에서 깨는 순간들을 보내며 생각에 잠긴다. 그녀의 하루 동안의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완벽하게 분명하다. 이어지는 내용은 긴 반추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용할 가치가 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상황을 바로 그 순간 우연히 세계를 돌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의 상황과 비교한다(108).

그것은 인간의 온갖 한계를 초월하려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유사한 바로 그 불멸의 오랜 동경이 아닐까? 만약 그런 일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인 죽음을 초월하는데 가까이 가고 있다는 느낌. ... 우리가 죽음 ... 그들은 저 위에 살아 있다. 행동의 바로 그곳 현장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위의 없음을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의 환경의 지붕이 되고 우리 지상에 사는 유한한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 ... 그 '없음'이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그것은 시간과 쌍생아이다. 나는 그것을 그래험의 목소리로 듣는다. '그 둘은 함께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개념 속에서 무한을 상징한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벗어나 우주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 그는 정말로 아직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일 수 있을까? 만일 신이 영원의 원리라면 그 사람은 오늘밤 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소설이 변형되는 코드와 관련하여 보면, 엘리자베스의 장황한 유추는 놀랍기는 하지만 정당하며, 그녀의 내적 논리를 명확히 한다(108). 그녀와 우주 비행사들 모두 이전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주로의 모험을 통해 부르주아 세계의 조건들이 극복되어야 할 미지의 정치 지대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비교는 또한 외곽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우주 비행사들이 동등하게 관여하는 자신의 초월성을 존재의 장벽과 접근의 원천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과 같은 원형적, 신화적, 종교적 탐구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녀의 생각이 머리 위에서 자신이 의도한 계획으로부터 탈구됨에 따라, 함축성에 의한 초월성의 교리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도 적용되게 된다(108).

만약 한 차원에서 정치적 선택이 우주적인 종류의 위상을 부여받는다면, 다른 차원에서 그것은 완전히 신화에 흡수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초월 이론은 역사를 완전히 초월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 고디머의 묘사의 다른 측면이 중요한데, 엘리자베스의 사색에 상징적인 차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생에 대한 알레고리가 매우 많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루크의 'proposal'과 그것의 성적 함축 이후 잉태하는 생각(gestating thoughts)들로 '임신'되어 있다. 그녀 자신도 동이 트기 전에 침대에서 반쯤 떨고 있는 태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머리 위에는 분명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태어난 우주 비행사들이 자신의 자궁처럼 생긴 캡슐 안에 있다. 실제로 그 차원으로 자신을 발사하는 우주비행사들은 캡슐에 '탯줄과 같은 코드선'로 연결되어 있다(109).'

신화적 방법'이라는 말을 만든 T. S. 엘리엇은 이 시간time이 영원timeless과 교차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신화적 방법은 역사적 단절, 문화적 파편화의 힘에 의해 위협받는 사회에 형태와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상징적 연결고리를 상상하기 위한 도구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이 소설의 역사적 사실주의는 갑작스럽고 방대한 신화에 의해 대치된다. 고디머는 이상하고 비상한 높은 곳에서 확신을 찾고 있다(109).

이 모든 것은 소설의 역사 의식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110). 우리는 그것의 다른 측면들 중 일부에 주목해 왔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회적 의식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이라는 사실, 그것이 혁명 이후의 아이러니한 여파의 순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의식의 내용을 특징짓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 가지 주요 특징들이 남아 있다: 여파 그 자체의 놀라운 심리적 환원주의, 엘리자베스의 미래 행동의 급진적 공리주의,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신화적 낭만주의. 소설에서 이 세 가지 특징 사이에는 해결이 없다. 현실주의와 낭만주의는 노골적인 모순으로 남아 있다. 개별적으로든 함께든, 이 세 가지 특징은 오직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이 세 특징은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의 고뇌와 위기의 순간에 대립적인 의식이 나타남을 함축한다(110).

소설이 끝날 때까지 엘리자베스가 범아프리카회의PAC에 돈을 돌리기로 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 확실해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그녀와 소설 모두에 대한 풍자가 되는 것이고 그 소설의 전체적인 전개는, 오히려, 그 모두가 걸려있는 역사적 절박감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든 아니든, 『가버린 부르주아 세계』는 그것이 생겨난 순간으로 돌아가는데, 그 방법의 격화가 방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인 적막감을 고조시키기만 할 뿐이다. 다시 한번 고디머의 소설이 시대적 극단에 걸맞게 의식의 극단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내부로부터 역사를 부여받는다. 역설적으로 이 소설은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위기에 대한 절박한 단기적인 대책을 제안하게 되면서 소설이 파기하고자 하는 기간의 연장선이 된다(110).

☆ 보호주의자

고디머의 『보호주의자』는 90여년 일찍 발표된 올리브 슈라이너의 『아프리카 농장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135). 고디머의 소설은 특히 1970년대 초 백인 소설 내의 다른 경향과 함께 슈라이너 이후의 문학 표지판의 일부로서 남아프리카의 식민지 의식 역사에 서있다. 무언의 과거를 그린 슈라이너의 작품이 식민지 질서의 불안한 정착을 대변하고 있다면, 고디머의 작품이 미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질서의 해체다. 아프리카 농장 이야기와 『보호주의자』가 갈라지는 지점에 남아프리카 정착민의 의식의 역사가 쓰여 있다(136).

1974년 『보호주의자』가 발표되었을 때 혁명에 대한 전망은 이전과 달라졌다. 소설은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드러낸다. 중심 캐릭터인 메링에서 이 시기의 남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역사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강경한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발전이 드러난다. 한편으로 메링은 고디머가 현재 지역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백인의 역사적 운명이 사실상 통일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나타낸다(136).

지역적 차원에서는 남아프리카의 백인 정권들의 운명이 점점 더 맞물리면서 이러한 인식은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137). 모잠비크, 앙골라, 짐바브웨에서 해방 투쟁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 블록의 어느 한 나라의 안전이 다른 나라들의 안전에 의존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의 다른 부문과 이전에 영국과 아프리카인의 이해관계를 분리했던 분할 사이에 자본의 상호 침투가 일어났다. 메링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뛰어난 산업가'로서(Conservationist 264; 137) 이러한 발전과 상호침투를 대표하며 1970년대 초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사람(new man)'으로 알려진 남아프리카 정치 경제의 구조적 기둥이 된다(138).

그러나, 이것은 반대되는 운동이 명백해지는 지점인데, 메링은 또한 이 시대의 더욱 주요한 현실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138).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단일 운명의 토대는 그들의 결속력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식민지 시대의 마지막 유산인 위임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지역 나미비아에서 국내적으로 이러한 징후가 처음 나타났다. 1971-2년 나미비아에서는 계약노동제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이는 사실상 이 지역을 마비시켰다. 나미비아에 이어 남아프리카 전체에서 일련의 파업들이 뒤따랐고, 1973년 4.12

흑인의식 운동은 흑인 학생 지식인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얻었다. 1960년대 중반의 긴 침묵 이후, 되살아난 저항의 새로운 흐름은 의심의 여지없이 소설의 정치적인 추동력으로 놓여있다(138).

1974년 출간된 『보호주의자』는 포르투갈 쿠데타³가 일어나기 전에 완성되었음이 틀림없고, 아마도 일반적인 필연성을 제외하고는 고디머가 그 영향이나 그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을 것이다(140). 그럼에도 이 쿠데타가 『보호주의자』가 출판된 바로 그 해,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음은 고디머의 소설에 가득찬 엄청나게 강한 '역사 의식'을 나타낸다(140).

메링 외에도 『보호주의자』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메링의 농장 표면 아래에 얹혀 묻힌 검은 시체다(140). 시체는 소설 속 메링의 중심적인 대립 인물이 되고, 『보호주의자』는 이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140).

두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관계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시신은 농장 경계에 있는 흑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살해되어 메링의 땅에 버려진 남자의 것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메링은 그의 운명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메링의 재산의 원천인 백인 소유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만명의 흑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링은 그들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농장에서 누리는 평화와 평온함은 정치적으로 그 장소를 억압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제도화된 사회 폭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남자의 죽음의 전제가 된다(141).

메링이 백인 세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시체는 흑인을 상징한다; 시체는 아파르트헤이트 하에서 흑인들에게 주어진 체계적인 억압, 착취, 학대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체의 존재는 궁극적인 귀환을 나타낸다. 이 소설은 역사의 전환 중 하나를 그리고 있으며, 예언적으로 『보호주의자』는 백인 역사가 끝나고 흑인 역사가 재개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소설의 거의 마지막 단어인 "그가 돌아왔다"(267)는 1950년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위대한 집회 외침인 "아프리카여! 돌아오라!"를 직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141).

이 비전의 실체를 고려하기에 앞서 메링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메링의 경우 이미 제시했듯이 남아공의 백인 사회의 조건이 응축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한 그의 진보적인 정부 안토니아의 말을 인용한다면, '보통 남아공 파시스트가 아니다'(Conservationist 249; 142).

실제로 메링은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먼,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인물이다. 따라서 고디머는 자연에 대한 그의 감수성을 구현함에 있어 그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동정을 확립하게 된다. 메링은 또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총명하며, 이는 진보적인 전 부인과 그의 아들의 공허하고

³ 1974년 포르투갈 쿠데타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감상적인 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그의 선견지명이 있는 현실주의는 분명한 안도감으로 다가온다. '예쁜 여자와 남학생'이 이뤄낼 수 있는 쉬운 '평화, 행복, 정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소설에서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메링이다(Conservationist 79, 142).

세계의 몇 퍼센트가 굶주리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곧, 이 세대든 다음 세대든, 우리가 굶고 고통받을 차례가 되어야 한다(Conservationist 467).

그러나 메링의 지성과 현실주의는 그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들을 강화하는 데만 기여한다(142). 그는 개발 이데올로기를 채택하는데, 이는 '진보'의 추상적인 개념에 따라 이익과 권력의 더 넓은 영역의 식민화를 정당화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메링의 관점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의 발전은 흑인과 다른 소외계층들이 적어도 '발에 신발을 신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142).

그러나 고디머가 그렇게 해서 고정관념의 축소를 피했다면, 그녀는 또한 소설이 다루는 시기에 중요한 종류의 유형화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143). 그 지점은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아마도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주제를 한데 모으는 소설의 강점이 드러나는 사례일 것이다. 메링은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로 주로 국가보다 덜 명백하게 '이념적'이었던 자본주의 부문을 대표하며, 아파르트헤이트의 과도한 이념은 어떤 의미에서 그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그의 전형으로서 재현적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장에서이다. 메링의 시대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오래된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억지스러운 인종차별이 이익, 지배, 권력의 기본 목표를 보존하는 훨씬 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법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143).

고디머가 메링을 이 모든 자료들을 응축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특성이 백인 사회를 포함하는 경향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144). 그 소설에는 백인 세계의 내부 계층화가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권 도시산업자본가인 메링은 언어, 문화, 사회, 경제,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로 그의 이웃 농업인 드 비어스와 구별된다. 그러나 경찰에게 그들이 시신을 처리한 방법에 대해 통화한 후, 흘리는 경찰에 대한 비웃음은 자코부스가 듣지 못하도록 낮게 유지되었다. 그가 생각하는 한, 백인 권위는 분명히 흑인 앞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진보적인 정부, 안토니아가 '공모,결탁'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모에 대한 비난은 안토니아에게 그대로 되돌아간다. 단일 백인 운명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은 메링이 안토니아와 같은 종류의 대립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백인 산업가가 경찰과 한통속이라면 진보주의자는 백인 산업가와 한통속이다. 그녀가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그녀 역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증명했다는 영광을 누리는 동시에, '있는 그대로' 나라를 떠나기로 한다(145).

메링이 소설이 등장하는 시기의 백인 사회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한, 남아프리카 문학의 맥락에서 추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농장과 그의 관계는 주목을 요한다(147). 농장은 토착지라는 점에서 환경과의 문화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여기서 '문화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생산적인 장소 또는 경작지(농장이 상징적으로 본질인 곳)와 자연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생태적, 사회적으로 농장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점이다. 농장에 대한 그의 주된 관심은 '보호'다(148). 여기서 메링은 그의 문화와 계급의 이념적 전도를 나타낸다. 그가 보존의 표면적 미덕을 구현하는 정도는 자연에 대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경제적 착취를 행하는 정도와 같다. 그는 실제로 농장에서 일하거나 그가 소유한 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연을 돌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8).

분명히 고디머는 남아프리카 이데올로기의 주요 신화에 구멍을 내고 있으며,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백인 남아프리카 문화의 자기 표현 내에서 중심 요소였던 메링의 땅과의 관계에 대한 낭만화이다(148). 고디머는 그것이 공허함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메링의 경우에서 이 감정은 그에게 소유물 중 하나인 더 근본적인 열정의 낭만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메링에게 농장은 종종 그의 재산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안토니아가 그에게 알렸듯이, 그는 팔지 않는 것을 사려고 노력했고, 그의 사회적 억압이라는 바로 그 수단을 통해 어떤 형태의 자연 교감을 얻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아마도 아프리카와 사람으로부터 그의 문화적 소외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149). 메링은 선달 그믐날 자정에 위스키 한 병과 함께 세 번째 목장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코부스가 그와 함께 있다고 상상한다. 이 특정한 밤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땅을 가깝게 느끼며, 비록 주인과 하인의 위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코부스와 그의 관계는 용서와 남성 동지애 그리고 상호 보편적인 이해의 아우라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메링의 착각일 뿐이었다(149).

그녀의 초기 작품에서 성적인 묘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태도나 세계사적 태도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는데 이는 『보호주의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149). 성생활은 메링의 땅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땅과 마찬가지로, 메링은 소유물에 특별한 만족을 느낀다: '여자를 돈을 주고 갖는 것은 특별한 즐거움이다.'라고 메링은 안토니아에게 말한다(Conservationist 77; 150). 자연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영역에서도 메링의 궁극적인 신조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침략'의 하나이다. 이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린 포르투갈 소녀를 무관심한 모습으로 밤새도록 성적으로 희롱하는 에피소드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자신의 손이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초연함을 느끼고 정작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줄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도 없다. 메링과 소녀 둘 다 내내 기계처럼 동작을 수행한다(150).

메링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보호주의자』의 이야기를 통해 점점 위협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된다(151). 일련의 예언 사건에서 그의 역사적인 죽음은 그가 세 번째 목초지(시체가 묻힌 곳)에서 잠이 든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언식으로 구체화된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대지를 입에 물고 땅의 눈을 응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은 그에게 매우 익숙하다. 이미 상상 속에 갇힌 것 같다(Conservationist 41).

시체와 유사하다는 느낌, 또는 더 정확히는 그것과 위치를 교환하려고 하는 느낌이다(151).
마지막에는 자코부스가 메링에게 시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말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달려갈 때까지 메링에게 이 느낌은 더욱 위협적으로 증대된다(151).

여기까지 소설의 서술 구조는 가정법 구조의 일종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메링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가 어떤 무자비한 계급 운명의 대상인 것처럼
계속된다(152). 결국 그의 운명이 예언된 것은 이 모든 징조들의 정점이자 압축에서이다. 시체가
떠오른 후 농장에서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진 메링은 히치하이킹한 여성 한 명을 골라 그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모든 여성들에 대한 외설적인 아바타를 발견한다. 그곳에서 메링은 그 여자의
갱스터 동료인지 아니면 경찰인지 모르는 한 남자의 감시 하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떠한
확신도 세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메링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주문이 정점을 넘겼고, 이곳이 메링의 마지막이자 완전한 붕괴의 현장이라는 것이다.
메링은 폐광터미에서 말 그대로 죽지만 앓을 뿐이다(152).

메링의 상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고디머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인해 흥미로워진다(153). 그 형식은 의식의 흐름, 즉 내면의 독백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메링에
관한 본질적인 요점은 그의 모든 세계가 기억과 반성의 관점에서 살아있다는 것이다. 메링에게
있어서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인다. 소설에서 그의 순환적인 연대를 구성하는 일련의 정신적
사건들 바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그런 외부 사건들은 오직 그의
종말/소멸만을 예견하는 경향이 있다. 메링은 사실과 환상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악몽의 세계에
살고 있다. 메링과 같은 인물은 1970년대 남아프리카 소설의 주관성의 위기, 특히 개인의 (적어도
잠재적인) 일관성과 사회적 조건의 개인적 초월 능력에 대한 가정과 함께 개인이 자유주의적
관점의 위기를 식별하도록 이끌었다(153).

『보호주의자』에 주관성의 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155).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주관성의 위기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디머는 결코 주관성의 보편적인
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의식 흐름의 형식적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기술을
강력한 사회적, 역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주관성의 위기는 역사적 현실이 메링이 대표하는 세계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소설의 세계 묘사와 역사적 전환에 대한 비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는 이 소설의 역사적 의식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것이다(155).

메링이 대부분의 일하는 날들에 농장에 없는 것은 농장 노동자들, 특히 농장 경영자인
자코부스가 농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156). 모잠비크의 폭풍우가 길을 쓸어내려
메링이 농장에서 고립되자, 자코부스는 마치 농장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농장을 운영해야 했다.
춤을 추던 날 밤에, 피니어스의 아내가 점쟁이가 되었을 때, 이 자연스러운 관계는 표면화된다.
메링이 없다면 흑인 공동체가 농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누린다. 그리고 메링은 “모든 것은
아마도 그들의 것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Conservationist 172; 156). 농장 일꾼들이
마지막에 시신을 묻으면서 이런 가능성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비전은 현실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흑인 농장 노동자들은 일과 식량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사회적 윤리의 측면에서 메링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누릴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사실주의 안에서, 그들의 세계는 역사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자원에 대한 결핍을 보이고 있다. 고갈되고 가난에 시달리는 흑인 농장 노동자들이 메링의 힘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156).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정치적 사실주의를 고려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많은 것들이 추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157). 정확히는 소설의 비전이 사실주의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결과 비전은 이미 다루어진 소설의 형태적 특징의 다양한 측면으로 대체된다. 이 비전이 드러내는 소설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전략은 실제 역사적 힘으로서 형식적 절차를 실제화하는 것이다. 한 차원에서, 아이러니는 기본적으로 본문 내의 형식적인 성질인 것으로서 정확히 그러한 힘이 된다. 아이러니는 『보호주의자』 전반에서 터져 나온다. 메링과 농장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아이러니하다; 보존을 중시하는 주인이지만 동시에, 그는 그의 하인들을 따라다니거나, 그들이 농장에서 야생동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걱정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혈연이 매우 중요한 백인 사회에서 궁극적인 남성 우월주의자인 메링의 아들 테리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메링의 문화적 힘의 일부는 사무실에서 농장까지, 공항으로,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그를 운반하는 그의 일상 거주지의 '격자'로 표현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격자는 메링에게 아이러니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메링이 점점 비자발적인 통제를 받는 미리 선택된 경로로 그를 프로그래밍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저항없는 그를 그의 계급의 '자살' 장소인 폐광터미로 이끈다(157).

이 아이러니한 전략은 소설의 상징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주요 형식적 정교함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돌출적이고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158). 메링의 운명은 상징적으로 수많은 경우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양식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고디머의 작품에서 다시 한번 소설의 상징성 중 하나는 '자연'이며, 그것은 본문에 복잡하게 엮여있다. 소설의 중심 모티브는 모든 사람이 측정될 수 있는 '알'이다. 메링의 알은 보존을 위한 것이고, 농장의 흑인 아이들의 알은 먹기 위한 것이다; 메링의 아내는 테리에게 선물로 인공의 알을 받는다. 인디언 아들에게 알은 헛된 평화의 징표가 된다. 이러한 예들이 시사하듯이, 소설에서 자연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흑인 세계이다. 자연은 실제화된 본질로서, 『보호주의자』의 궁극적인 역사적 힘에서 그 자체로 힘이 된다(159).

특히 자연의 상징적 지위는 초월주의를 구성하는데, 역사의 작용 너머의 힘이 역사적 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160).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서사의 표현이나 비전의 취약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만약 어떤 다른 형태의 예언이라도 절대적인 확실성의 아이디어와 연관된 상징적인 제안보다 더 강력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주의자』는 환영의(visionary) 전통들 중 가장 오래된 것에 참여한다(160).

마지막으로 소설의 사실주의와 상징주의 사이의 관계는 소설의 역사적 의식의 중심적인 측면의 열쇠가 된다(160). 소설의 예언이, 흑인의 역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역사적인 확실성을

표현하게 된다면, 흑인의 역사가 형식적이고 상징적이며 초월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방식은 소설의 사실주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실제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수단과 목적의 괴리, 욕망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소설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전이에서의 지속적인 기교를 통해 교섭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순, 괴리는 그 과정에서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보호주의자』에 드러난 모순은 남아프리카의 백색 급진주의자의 고립을 나타낸다. 백인은 시체가 나타내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 같은 흑인 세계의 실제 역사적 변화의 장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소설은 저술 당시 남아프리카의 더 넓은 순간과 분위기를 대변한다(160).

결론적으로 『보호주의자』의 주된 추동력은 상징이다(168). 상징주의는 그것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징주의는 그것의 지배적인 방식이 되어왔다. 글의 앞부분에서 이 양식은 소설이 나타내는 예언의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의 정확한 수단이나 시기가 여전히 불분명한 현재에 소설의 비전의 한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평가를 보완하게 된다. 소설이 대안적인 현실이 도래하는 과정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최소한 다가오는 대안적인 현실이 '있음'을 기록한다(169).

인용 문헌

Clingman, Stephen. *The Novels of Nadine Gordimer: History from the Ins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2.

Gordimer, Nadine. *The Late Bourgeois World*, London: Cape, 1966.

Gordimer, Nadine. *The Conservationist*, London: Cape, 1974.